

남원의료원, 감염 예방·대응 역량 강화 교육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23일, 순창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주제로 한 감염관리 교육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수병원 감염관리실, 순창요양병원 등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 비율이 높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감염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남원의료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수병원 감염관리실 손정아 팀장을 초빙해 교육을 추진했다.

오진규 원장은 "이번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농촌 일손돕기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는 23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영면 고령지 포도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수급난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원시 봉지 싸기를 도왔다.

남원시 아영면 일대는 고령지 포도 재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최근 농가에서는 인력 부족과 고령화, 이상기상에 따른 생육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농번기 집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작업복과 장갑을 갖추고 포도송이마다 봉지를 씌우며 농가의 영농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이수경 현장지원과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119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 가입 홍보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서비스를 사전 등록하면 119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접수 시 신청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 안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신청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ui19.nfa.go.kr)에 접속하거나 홍보물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개인별 이름, 연령, 연락처(보호자 포함), 주소, 장애유형 및 거동상태 등을 입력하면 된다.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대리인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체능 청소년 특기생 9명에 꿈 지원금 전해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월드비전과 'JB 드림 탤런트 지원 사업' 추진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체능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월드비전과 함께 'JB 드림 탤런트 예체능 특기생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선발된 예체능 인재 9명에게 총 2,000만원의 꿈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 교육비 등 재능 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지원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선발된 예체능 인재 9명에게 총 2,000만원의 꿈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장수소방서, 과학축전서 맞춤형 119체험부스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20일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 장수과학축전에 참가해 군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 체험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축전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일상 속 안전 수칙을 직접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소방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재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천형 생존 교육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 진압 및 대피 요령 실습 △고층 건물 화재 시 생명줄이 되는 완강기 착용법 및 하강 원리 교육 △기적의 끝단타임을 지키기 위한 마네킹 가슴압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기도폐쇄 시 생명을 구하는 하임리히법 교육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시티스테이 올레' 2회차 성료... 역사·자연·원도심 매력 알렸다

정읍시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타지역 거주자 30명과 함께 역사, 문화, 도시재생 거점을 잇는 1차 2일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인 '정읍 시티스테이 올레' 2회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읍시지역협력센터와 정읍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은 이번 행사는 아이 동반 가족이 주를 이뤘던 1회차와 달리 노부부를 비롯해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 단위 관광객이 다수 참여했다.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져 세대 간 공감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다.

첫째 날 일정은 숲문화관에서 안내 교육(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무성서원과 내장산 우화정, 내장사, 케이볼카 등을 차례로 방문해 유교 문화와 자연환경을 만끽했다. 오후에는 '1894 달하루' 전시장을 찾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인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창작물로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밤이 되자 참가자들은 '쌍화차 커뮤니티라운지'에서 지역 대표 먹거리인 쌍화차를 맛봤다. 원도심 탐방을 통해 골목상권의 정취를 직접 느낀 뒤, 다시 숲문화관으로 돌아와 지



역 음식 만들기 및 막걸리 시음, 친목 활동(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튿날에는 용산호 미르샘의 맑은 아침 풍경을 감상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떡억울림플랫폼에서 떡 만들기 체험을 하며 지역 주민들이 가꾼 도시재생 거점 공간의 의미를 되짚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경찰서, 마을회관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이영정)는 최근, 천천면 소재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최근 농번기와 야외활동 증가로 고령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 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자 3원칙인 '서다, 보다, 걸다'를 설명하며,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멈춰 서서 좌우를 살핀 후 안전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6월을 '고위험 교통사고 예방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고령자, 이륜차, 화물차, 음주운전 등 4대 고위험 교통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홍보·단속활동을 강화해 교통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운암면, 내래산·국사봉 등산로 풀베기 작업 완료

임실군 운암면은 최근,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산림 경관 조성을 위해 내래산과 국사봉 일대 주요 등산로 8km 구간의 풀베기 작업을 마쳤다.

이번 준비는 무성하게 자란 잡목과 풀을 제거해 낙상 사고나 야생 동물과의 접촉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등산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산림 이용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암면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풀베기 작업과 함께 등산로 정비,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심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산림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6645-9935

중앙지사

010-9088-66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8329-6677

익산지사

858-98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6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통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화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빛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